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, 의사당 폭동사태 가담 퇴역군인 별도 테러 모의로 종신형
 - 7.3 언론은 지난 '21년 1월 6일 연방의회 폭동사태에 가담한 뒤 사면을 받은 퇴역군인 「에드워드 캘리」가 美 연방수사국(FBI) 사무실을 폭탄과 드론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
 - ※ 범인 측은 대통령의 사면이 FBI 공격 모의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으나, 美 연방법원은 해당 사건과 시간적 물리적 거리가 있다며 불인정
- 美, 시리아 과도 정부 핵심 무장세력 테러단체서 해제
 - 7.8 언론은 美 정부가 시리아 제재 해제 관련 행정명령(6.30)의 후속 조치로 독재정권을 축출하고 들어선 시리아 새 정부 핵심 세력인 이슬람 무장 조직 '하야트 타흐리르 알샴(HTS)*'의 외국테러단체(FTO) 지정을 취소했다고 보도
 - ※ 美 국무장관은 同 조치는 “HTS를 해산하겠다는 발표와 함께,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과 싸우겠다는 시리아 정부의 약속에 따른 것”이라고 부언

유 럽

- 佛, '여성 탓에 손해'...여성 테러 기도한 10대 체포
 - 7.3 언론은 프랑스에서 인셀* 이념에 기반해 여성을 상대로 한 흉기 테러를 기도했던 남자 고교생이 체포됐으며, 프랑스에서는 인셀 이념 관련 아직 초기 수준이지만 이를 '신홍 폭력적 극단주의'의 위협으로 보고있다고 보도
 - * 여성에게 거부당하고 손해 봤다는 인식에 심취해 여성을 겨냥해 적개심과 폭력성을 발현하는 남성 하위문화로 서방에서 해당 개념이 전파
- 英 법원, 「팔레스타인 액션」 금지령 중단 요청 기각
 - 7.5 언론은 英 법원이 「팔레스타인 액션」을 테러단체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것을 일시 중단시켜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으며, 법원은 의회에서 특정 집단을 금지하는 결정의 타당성은 법원의 판단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고 보도
 - ※ 「팔레스타인 액션」은 항공기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과격한 시위로 인해 금지단체로 지정됐으며, 해당 단체를 지원하거나 지지를 표명하면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

아 테

- **韓, 성신·광주여대 폭발물 설치 신고로 학생·교직원 긴급대피**
 - 7.7 언론은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“여성은 교육이 필요 없다,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겠다”라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 軍·警이 투입되고 학생과 교직원이 긴급 대피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
 - ※ 경찰은 두 대학에 메일을 보낸 발신자가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발표
- **韓, 국내 기술개발 ‘탄저백신’ 자급화로 대응력 강화 기대**
 - 7.8 언론은 질병관리청이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탄저백신을 개발하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하였으며,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
 - ※ 질병청은 이번 백신을 예방 접종에 활용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마련할 계획

중 동

- **UAE 중앙은행,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거래소에 벌금 부과**
 - 7.6 외신은 UAE 중앙은행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위반한 거래소에 벌금을 부과했으며, UAE는 지난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및 확산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‘24~’27 국가 전략을 도입했다고 보도
 - ※ UAE는 ‘2021년 조직, 개인을 조사하는 자금세탁법과 테러자금조달방지국을 설립했다고 부언
- **후티반군, 홍해에서 침몰한 화물선 공격 배후로 지목**
 - 7.6 언론은 홍해 해역을 지나던 그리스 업체가 운용하는 화물선이 후티반군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침몰했으며, 선원들이 침몰 위기에 몰린 배를 버리고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보도
 - ※ 관계자는 수상드론(USV), 미사일 등을 동원한 것으로 보아 후티반군의 공격이 분명하다고 주장

역사 속 테러사건

이스라엘, 텔아비브 차량 돌진 및 흉기 사건

- '23. 7. 4 텔아비브 핀찬스 거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차량돌진 및 흉기 공격으로 1명 사망·9명 부상
 - 용의자(후세인 칼릴라 23세, 男)는 픽업트럭을 몰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내려 흉기로 공격을 감행 후 현장에서 사망
 - 同 사건 이후, **하마스**는 "23년 6·7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**제닌*** 침공을 감행한 것에 대한 복수"라며 해당 공격을 영웅적 행동이라고 칭찬
 - *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무장 투쟁의 상징적인 도시이자 이스라엘 북부와 인접, 게릴라전 및 저항세력 은닉에 유리한 지역
- ⇒ 이후 계속되는 가자지구 봉쇄, 서안지구 충돌 심화 등 긴장 고조 속 '23.10.7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-하마스 전쟁 발발

테러 상식

< 하마스(HAMAS) >

- **(결성)** 이집트 '무슬림 형제단'의 팔레스타인 지부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'인티파다'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 10), 영국('01. 3), 캐나다('02. 11)
- **(연계세력)**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**(핵심인물)** 이스마일 하니예(최고 지도자, '24. 7. 31 이란 테헤란에서 암살(이스라엘))
- **(활동지역)**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內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등
- **(활동수법)** 이스라엘 軍·民 대상 폭탄테러·총격·로켓공격·납치
- **(주요테러)**
 - '08. 12~'09. 1 이스라엘 軍과 하마스간 '가자 전쟁' 발발, 800여명 사망
 - '19. 5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와 연계하여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700여발을 발사(사망 4명, 부상 80여명)
 - '23. 10. 7 이스라엘 전역 대규모 기습공격, 1,200명 이상 사망, 수백명 인질 납치(이스라엘-하마스 전쟁 발발)